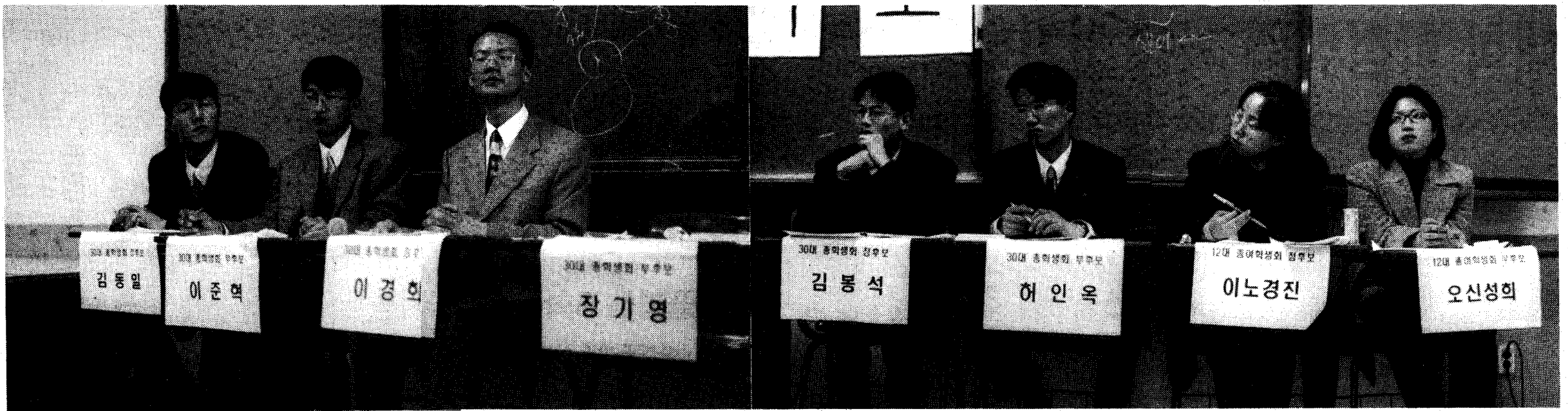




30대 총학생회 12대 총여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 정책토론회

김동일·이준혁

“대중의 광범위한 동의속에

“작은 국가를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학생회

이경희·장기영

한총련은 주인되찾는 방향으로 거듭나야”

운영능력 배가, 독창적 사업 펼칠터”

김봉석·허인옥

“학부제, 토익, 취업등 자본의

“총학생회 사업에 여학우 입장

이노경진·오신성희

공격에 학우들 보호할 수 있는 철학 필요”

먼저 생각하는 주체적 모습 만들겠다”

지난 14일 밤대 101 강의실에 온 19·20일 양일간 치러질 서울캠퍼스 총학생회선거를 앞두고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한 질문에 대해 각 후보들은 열띤 의견 교환을 했다. 이날 각 후보들이 내세운 정책들에 대해 4개의 선거운동본부로부터 탈채문을 받아 우리신문에 게재했다. (편집자)

〈30대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입후보자 공동질문〉

1. 학생회의 위기를 진단하며 학생회에 대한 학우들의 무관심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학우들과 함께하는 학생회에 대한 많은 대안들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각 선본의 후보자들이 생각하시는 학생회 위기의 원인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나름의 구체적인 대안을 30대 총학생회 사업계획서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일·이준혁 후보〉

학생회의 위기는 학생회의 주인이 없는 문제입니다.

과거 우리 선배들이 가졌던 헌신성, 치열한 삶의 자세를 지금의 우리 일꾼들이 배우고 있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했던 사업들만 고집스럽게 부여잡고 무엇이든 학생회 일꾼이 모두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어렵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학생회 일꾼은 일꾼대로 지치고 학우들은 자꾸 멀어져만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변화하는 사람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서른 살 총학생회는 자주, 민주, 통일과 인간중시라는 이념을 중시하는 사업들을 일상적으로 펼칠 것이며 일꾼들이 학우들과 일상적인 교감을 형성하는 자리 한일꾼, 한강의식 책임지기 운동과 토론포럼을 반드시 펼칠 것입니다.

또하나 자주, 민주, 통일이 우리 운동의 본질적 과제임에는 분명하지만 학우들의 요구는 매우 다양합니다. 서른 살 총학생회에서는 학우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은 거리문화제와 학우들의 문화적 지향성을 담은 인연영화제, 단편영화와 함께 하는 젊은 영화제, 한 달에 한 번 작은 콘서트를 진행하는 징검다리 문화제를 개최할 생각입니다.

〈김봉석·허인옥 후보〉

학생회는 학생들의 자치체로서 건설되었지만, 94년도 주체사상이 한총련에 전면화되었고, 여기서부터 그들의 노선과 사상에 동조하지 않는 학우들에 대한 학생회의 폐쇄성과 비민주성이 학우들과 학생회를 멀어지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혁신의 방법으로 간부혁신과 대중사업을 제시했지만, 주체는 학생회였고 학우들은 노선은 알지못한 채 대중사업의 구경꾼으로 낙하 버리고 있는 지금의 모습입니다. 이제 새로운 학생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학부제, 토익, 컴퓨터 그리고 취업등 자본의 공격에 학생회는 학우들의 보호할 수 있는 철학을 가져야 합니다. 대중사업 역시 학생회는 재정과 공간, 비전을 제시하고, 각 단위가(동아리든 자치모임이든) 자기의 대중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합니다.

〈이경희·장기영 후보〉

요즘 학생회 위기의 원인은 총학과 학우들간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총학이 한총련 문제 등 일반학우들과는 거리가 있는 정치적 문제에 너무 관여하다 보니 학우들의 총학사업에 대한 관심도나 참여도가 많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학우들은 총학과 일정 거리감을 두고, 총학은 학우들에게 다가가서 교감의 장을 만들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상호간의 접근이 어렵다고 봅니다. 이러한 연유로 모든 학우들이 주인인 총학생회가 일부 특정 학생들만의 조직으로 인식되어가고 당연히 총학생회가 제 역할과 위상을 찾지 못하는 학생회의 위기가 닥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총학간부의 공개등용, 각 단체 학생회와의 유기적 연대, 총여와 동원과의 유기적 연대, 총학간부들의 투철한 사명감, 30대 총학만의 창조적 사업추진 등을 통해 진정으로 9천 경희인이 주인되는 총학생회를 반드시 만들고자 하겠습니다.

〈12대 총여학생회 정·부학생회장 입후보자 공동질문〉

1. 12대 총여학생회 이노경진·오신성희 후보 선거운동본부의 이름이 2·5선본이며 그것은 추천기간에 진행하였던 '부모성 함께쓰기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5가 가지는 의미와 부모성 함께 쓰기운동을 진행했던 이유, 앞으로 이운동을 어떻게 학내에서 풀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노경진·오신성희 후보〉

‘이오’는 총여학생회장 후보와 부총여학생회장 후보 어머니의 성인 ‘이’와 ‘오’를 각각 따놓은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누구누구의 아내로 불리워지고 자식을 낳으면 누구누구 엄마로 불리워지는 우리 어머니들의 잃어버린 성을 찾고 싶었고 그 시작으로 부모성 함께 쓰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변화했고 제도와 법도 변화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은 여전히 우리의 머리속에는 남아 선호, 남성 중심의 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성 함께쓰기는 남성중심 사회 속에서 문제제기 하여 의식변화의 실천에 일꾼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의 성을 찾고 이름을 찾고 정체성마저도 찾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경희·장기영 후보측의 김동일·이준혁 후보측에 대한 질문〉

1. 남북통일의 비전은 무엇이며, 「통일을 향한 바람직한 통일운동의 방향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현재 동북아 정세에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동북아에서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라는 작은 나라는 전 민족이 민족의 미래를 옹호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주변강국은 인구 7천만 이상의 강대국이 태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이 패권다툼을 하고 있는 20세기 후반과 21세기는 통일의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가장 올바른 통일운동의 방향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에 근거해서 민이 참여하는 통일운동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우리는 올해 북한동포돕기 운동에서 통일운동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정부가 정치적 문제를 앞세우고 굶어죽는 한민족에게 이러한 조건을 달아서 지원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 재는 동안 민중들은 아이의 돌반지를 팔아서 모금함에 돈을 넣는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민족대단결 의식, 이것이 통일의 첫걸음이고 이러한 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이 통일운동의 기본방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우리는 통일운동을 일상적이고 대중적으로 각 지역에서 펼쳐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봉석·허인옥 후보측의 김동일·이준혁 후보측에 대한 질문〉

1. 모든 학우들은 학생회가 학우들의 중심에 서지 못하는 것이 위기라고 이야기합니다. 29대 총학생회 사무국장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한총련개혁과 혁신을 주장하는 김동일·이준혁 선본에 결합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선본의 공식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답을 하기 전에 아쉬운 점을 한가지 짚고 넘어가려 합니다. 정책간담회는 서로의 정책 방향에 대해 함께 토론하고 서로 잘

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지적하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따라 배우는 자리이고 그런 토론을 학우들에게 공개하면서 학우들의 정책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주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김허 선본은 질문에서 우리 정책에 대한 질문보다는 선본에 대한 문제제기나 29대 총학생회에 대한 평가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아직까지 김허 선본의 자료집을 받아보지 못해서 김허 선본의 구체적인 정책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청년학생의 선거는 순수하게 정책대결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책대결보다 다른 문제점들이 자꾸 부각되는 것은 결코 양의에 대한 강요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회 일꾼 중 임기를 다하지 못하고 그 다음 학생회를 준비하는 경우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약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부장장의 임기를 끝까지 다하지 못한 나와 동아리 문화제 기간에 사퇴서를 제출한 동원장님, 의대 학생회장 임기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한 장도모 모두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 됩니까?

우리 중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월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올해 학생회를 평가하고 내년 학생회를 준비하는 것이고 그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선거를 학우들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책임있는 일이라 생각하기에 우리는 총마하는 사람에겐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사무국장이 책임있게 올해를 마감하고 29대 총학생회를 평가하며 보다 혁신하는 새로운 총학생회를 세우기 위해 선본장을 책임지게 된 것이 무책임한 일이라 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허 선본에서 총여선 학생회로 평가하는 26대 총학생회에서는 사무국장과 노동자연대사업국장이 후보로 출마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도 누구하나 비난하지 않았습니. 내년 학생회를 책임지게 혁신하며 세우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사퇴서를 총학생회장님께 제출하긴 하고 사무국장이라는 중대한 지위에서 학우들에게 사퇴서를 공개하지 못한 것은 실수한 것이라 생각하며 우리 선본 모두가 사과를 드립니다.

2. 김동일·이준혁 선본은 학부제, 교과과정 등 여러 부분의 문제에 대한 책임의 상당부분이 학교측의 졸속행정과 일방적 방식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교과과정에 대한 사안은 총학생회의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학교가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교와 총학생회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올해 29대 총학생회의 학자에 대해 평가해 주십시오.

질문에 답하기 전에 질문지에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와 교과과정심의위원회라고 구분해서 물어보신데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와 학은 교과과정심의위원회, 예산심의위원회, 졸업준비위원회를 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구분되는 단체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학자 일은 12월부터 시작되어 늦지 않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학자사무국장이 늦게 인선되고 각 국원들이 2월이 되어서 인선이 되면서 이월도 거의 받지 못하였고 그러한 관계로 인해 학자사업이 제대로 진행된 것이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98년이 교양교과과정 개편되는 해 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나 총학생회의 준비가 전혀 없었던 점은 냉철하게 평가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3년만에 한번씩 교양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그에 대한 고민이 없이 졸속으로 행정을 처리하는 학교도 문제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총학생회도 분명 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29대 총학생회의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명확히 하며 우리의 대안을 가지고 학우들을 만나려 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만들 교양강의 청원문이나 총학생회 추천과목의 질적도약, 모든 교양 강의를 위한 강의평가서 발간, 98년 교양 개편을 준비해서 99년에는 개정된 교양과목을 수강할 수 있고 2001년에는 영역제조까지 고려하면서 연구조사를 강화할 것입니다.

〈김동일·이준혁 후보측의 이경희·장기영 후보측에 대한 질문〉

1. 이경희·장기영 선본에서는 총학생회의 위상 재고찰을 이야기하면서 복지문제, 인본주의, 학자문제, 학자 등으로 특화시킬 것을 이야기하였는데 이것은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학우들과 함께 호흡하는 학생회, 강력한 경희대, 21세기 명문사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총학생회의 위상 재고찰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실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 정말 고민하고 계신 위상은 어떤 것이며 학우들과 함께 호흡하는 학생회, 강력한 경희대, 21세기 명문사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경로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 정책에서의 지적은 형식적인 기구로서의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총학을 책임지게 되면 “작은 국가”를 경영한다는 책임있고 신중한 마음으로, 학생회 운영능력을 배가하고 이전과는 다른 독창성 있는 사업운영을 해나가 9천 경희 모든 학우들이 소속감과 자부심을 가지도록 이끌어 낼 것이며, 이를 위해 각 단위에 숨어있는 능력있는 경희 모든 학우들에게 인재등용의 문호를 개방하고자 합니다.

즉 저희가 구상하는 30대 열린총학의 위상은, 운동권만의 총학이 아닌, 9천 경희인 모두가 믿고 따를 수 있는, 9천 경희인과 함께 호흡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총학생회입니다. 이러한 응집된 힘을 바탕으로 9천 경희인을 비롯해 14만의 총동문회 및 예비 경희인이 대동단결하여 21세기 명문사학으로 도약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김봉석·허인옥 후보측의 이경희·장기영 후보측에 대한 질문〉

1. 30대 총학생회를 어떤 상과 계획으로 운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30대 총학생회는 기존의 학생회의 모습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차원의 총학으로 그 위상과 자리매김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즉 기존 총학의 기능인 봉사 기능과 정치적 기능에 더하여 자주경희 30대 총학만이 추진할 수 있는 창조적 역할수행 및 사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적 사업의 예를 들자면 ‘개교 반세기 기념사업’으로서 △‘98경희인 모듬 모꼬지(9천 하나되기) △서울 수원 배울터 연합 전체학생총회(1만9천 하나되

기) 등을 현실성 있게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30대 총학을 ‘작은 국가’를 경영한다는 책임있고 신중한 마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총학을 이끌고자 합니다. 능력있는 총학간부를 공개등용하고 발로 뛰는 일꾼이 되었을 때, 학우들은 총학생회에 대하여 소속감을 가지고 높은 관심과 참여를 보여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2. “대학정신을 지키지 못하고 사회에 대한 비판제 기능을 상실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 대학생의 현주소는 21세기 세계화시대에 적합한 새로운 방향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대학정신이란 무엇이냐고 생각하시고 새로운 방향이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대학정신이란 ‘진리를 탐구하는 학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정신적 사고체계’를 말합니다. 즉 ‘왜?’를 항상 머리속에 건지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이러한 대학정신과 사회비판제 기능을 상실했을 때, 결국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이를 전제 비판해 줄 세력이 실종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대학정신과 사회비판제 기능을 지키며, 이 땅의 민주와 민족통일, 그리고 세계화를 성취하는 데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건전한 학생조직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방향전환을 시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 지식·지성인 집단으로서의 대학생 조직은 대학정신과 사회비판제 기능 수호의 기반 위에서 민족통일과 세계화 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해내는 쪽으로 학생운동의 방향을 정립하고 그 방향으로 학생운동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김동일·이준혁 후보측의 김봉석·허인옥 후보측에 대한 질문〉

1. 김·허 선본에서는 전대협·한총련 11년의 역사를 독단과 독선의 역사로 평가하면서 학생운동의 역사 자체를 부정하고 새로운 학생운동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사학 민족주의의 발전에 학생운동이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음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으며 전대협의 자랑찬 역사를 부정하는 학우들은 없습니다. 이에 대한 평가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새로운 학생운동 질서가 지향하는 바는 무엇이며 새로운 학생운동 질서의 강령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조직적 형태는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3월 등록금 투쟁, 봄농활, 5월투쟁, 여름농활 그리고 8월 법민족대회, 각각의 사업이 하나의독자성을 가지지 못하고 한총련은 모든 운동을 통일로 귀결시켰습니다. 통일운동 이외에 모든 것을 도태시킨 한총련, 이것이 바로 독단과 오만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제 한총련과의 단절을 선언해야 합니다. 한총련으로 대표되어 왔던 학생운동은 이제 그 다양성들을 인정해야 하며, 그것이 자율과 공존의 이름으로 함께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운동일지라도, 자신의 삶과 연관된 각자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발전해야 하며, 이러한 것들이 모여 새로운 학생운동의 질서와 노선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2. 김·허 선본에서 제기하신 예산자치제의 문제의식은 참으로 건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 선본에서도 예산자치제에 대한 고민이 있어서 이미 실행되고 있는 서

울대에 대한 실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선거정책으로 외화하기 위해 현실가능성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우리학교의 두배규모의 자치회비를 가진 서울대에서는 현실가능한 일이지만 우리학교처럼 작은 학교에서는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우리학교의 예산규모로서는 각 단체에 실질적인 지원이 아닌 생색내기 이상이 안될 것이라는 것이 그 판단의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김허선본에서는 예산자치제가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예산을 지원할 자치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가 될 수 있는지(낙선후보의 정치세력과 감사위원회 제외), 어떤 규정에 의해 지원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신문에서 신입생 환영회, 동계 등과 같이 공식적으로 승인된 것에 대한 지원은 자치예산으로 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자치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인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자치제의 목표는 총학생회 예산의 투명성 보장, 그리고 학생회를 배제한 자치 단체에 대한 지원에 그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가능성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에 비추어진 당위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매년 50%가 겨우 넘는 투표율에 8천5백의 학우중 2천5백의 학우들만 지지하면 당선되는게 총학생회 선거인데, 1년 사업은 당선된 사람들의 마음대로 계획되며, 예산 또한 이들에 의해서만 쓰여지는게 사실입니다. 한총련의 정기회비에 자치예산의 4%가 빠지고, 통준위등에 쓰이는 돈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줄이면 예산자치제는 충분히 가능하며, 예산감사위원회만 꾸리면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입니다. 또한 이 기구를 통해 총학생회의 1년 예산을 공개적으로 심의·감사할 수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학우들의 자치와 참여, 더 이상 학우들의 대외화시키지 않고 그들을 하나의 사업주체로 세우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경희·장기영 후보측의 김봉석·허인옥 후보측에 대한 질문〉

1. 교육시장 개방을 맞이하여 우리 경희대학의 비전은 무엇이며 30대 총학의 역할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94년부터 대학에 교육시장 개방, 대학종합 평가제에 의한 서열의 논리 부각등으로 각 대학이 지금까지와 달리 적극적인 모습으로 발전계획을 제시하고여러 부문에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신문에는 어느학교, 어느학교의 성적은 전체 몇이라는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고, 등용문에서 학교로 올라오는 길에는 어느고 최우수 평가라는 플래카드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경희대가 대부분 과의 대학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저희 경희대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고 있습니까? 취업을 앞둔 4학년들에게 경희대의 이름이 그렇게 자랑스러운 간판입니까? 경희대 교육의 문제는 투자의 미비가 아니라 그 방향의 문제, 그리고 경희대는 어떤 사람이라는 경희인의 상, 경희학풍이 없다는데 있습니다. 이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며, 대학원 중심의 연구활동, 교양과목 개편, 마지막으로 homepage등을 이용해 취업, 논문, 도서관 등의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화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